

이력서

이력서를 읽으시는 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이력서는 PC로 작성는 PC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쇄 레이아웃 ON 혹은 PC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미안 D. 리버

그레스코퍼레이션 (이하 G사)

1423-4123

dlover@heart.com



인용문

인용인용인용 강조한다.

인용인용인용 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한다

인용인용인용 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한다

인용인용인용

인용인용인용 강조한다.



멍청하고 멍청한 아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니?

... 이런, 아이고 미안해라! 난 도와줄 수가 없는걸?

다만! 해결책을 제시해줄게. 그걸 따를지는 네 선택에 달렸어.

”

그거 아니, **아가?**
아니다! 말 안 할래.

난 나보다 **멍청한** 아가한테 이런 고급 정보는 안 알려줘.

NAME

[이름]

Damian D. lover

“ 데미안! 다들 그렇게 부르곤 하지. ”

뭐, 가끔은 **디러버**라고 하는 애가 있지만 말이야.

흠? 나쁘냐고? 나쁘지 않아. 오히려 재밌어.

이름은 **데미안 D. 러버**. 그와 같이 일한다면 언젠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많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여 부를 수도 있고, 그를 혼계하기 위하여 말할 수도 있겠지.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르겠지만.

그는 그를 어떻게 부르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름은 그저 무엇을 부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뿐.
그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누군가 그를 놀리기 위해 ‘디러버’라고 한
적이 있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어했다.

만약 그를 본다면 ‘디러버’라고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 아마 즐거워할 것이다.

Title
[칭호]

아 알아서 잘 살아남아봐
배지가 몇개야? 엄청 무책임한 안전하지않은...

[안전팀 팀장]

대체 그를 왜 안전팀 팀장의 자리에 놓은 건지. 그에겐 절대 어울리지 않는 칭호이다. 그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믿지 않겠지. 안 어울리는 이유? 그거야 간단하다. 그는 절대로 타인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까. 자신이 위험하지 않는 이상,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해결책**만 제시할 뿐. **차라리 안전팀이 아니라 정보팀으로 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 간단하게 말하자면 안전팀은 망했다.

저... 너무 심하게 말하네,
그래도! 맞는 말이니 별말은 안할게~
따질 거면 내가 아니라 관리자나 인사팀한테나 따지도록?

Age
[나이]

34

나이라, 딱히 신경은 안 써. 그래도 나이 때문에 멀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아 참! 이걸 말해둘게. 나이가 나보다 많은 적든 난 아가라 부를 거야. 이상.

Height / Weight
[키 / 몸무게]

178cm / 59kg

Departments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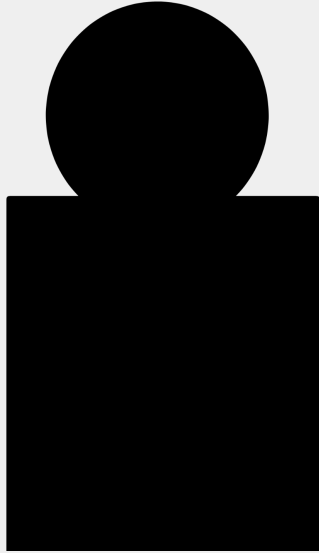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부서.

안전팀의 주요 업무는 직원 관리와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 또, 신입 직원들을 훈련시키거나 비상, 돌발 상황들을 대처하는 부서다. 그렇기에 높은 신체능력과 전략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그나마 다행하게도 그는 높은 신체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는 안전을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문제.
...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안전팀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Appearance

[외관]



30대인 그였지만 자칫하다간 20대 초반으로 보일 수 있는 외모. 그는 마른 느낌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인 인상은 사나운 인상.

다만 입은 내려갈 생각이 없는 듯 언제나 올라가 있었기에 사납다는 느낌을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었다. 붉은색과 약간의 보라색이 섞인 느낌의 긴 생머리는 그를 돋보이게 하고, 금색의 가늘고 날카로운 눈이 당신을 바라보겠지. 만약 만난다면 그 눈은 당신을 매우 깊게 관찰할 것이다.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믿을만한 직원인지.

... 아, 그리고 그에게는 오른쪽 눈 밑과

오른쪽 목에 점이 있다.

그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무언가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그런 모순적인 분위기. 따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빠를 것이다.

아마 당신도 그를 본다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그는 G사의 직원이기에 기본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다만, 정장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마이는 거의 풀어헤쳐져 있다는 것이 함정. ... 이 직원이 과연 팀장은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좋지 않아보였다.

특징이 있다면 배지들이 주렁주렁 열매맺듯이 정장에 있다는 것 정도. 배지들은 계속해서 바뀌며, 가끔은 10개 이상 끼고있을때도 있다고 한다. 가끔은 무겁지 않나 생각할 때도 있다.

Personality

[성격]



————KEYWORD————

< 사교적인, 능글맞은, 예측할 수 없는 >

1. “ 대화는 모든 것의 시작이지. ”

keyword: [사교적인], [직설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그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기도 하다. 대화는 많은 정보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겠지. 다만... 문제가 있다면 대화할 때엔 단청을 피우는 것이 대다수라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거의 필터 없이 내뱉는다는 것.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뭐, 그래도 여러 사람들과 잘 사귀고 쉽게 어울리니 사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는 논쟁을 좋아한다. 논쟁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게 여기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 물론 그는 옳고 그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러는 이유는 그저 논쟁이라는 것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뿐이다,

2. “ 뭐~ 능글 맞다는말은 많이 듣는 편이야. ”

keyword: [능글맞은]

그는 자신이 실수해도 재치 있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편이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
하지만 진지할 때는 무척이나 진지한 편이다. 사람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

3. “ 나를 알고싶어? ”

keyword: [예측할 수 없는]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바뀐다. 가끔 당신의 편을 들어줬다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그의 행동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아마 그 빼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상을 내려줄 것.

*나머지는 나와 이야기 하면서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다가와줘.*

L / H
[L / H]

Like	Hate
배지 재미있는 것	재미 없는 것 혼자서 하려하지 않고 의지하는 이들

Characteristics

[특징]

생일	1월 13일. 탄생화: 수선화, ‘신비’ 탄생석: 가넷, ‘희생과 충성 / 변하지 않는 마음과 진실’ 탄생목: 느릅나무, ‘고결’
혈액형	AB형
출생지	등지 출신 등지 출신인 만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왔다. 약간의 우아한 행동도 등지 출신이라 그런걸지도.
목소리, 발음, 말투	정확한 발음의 허스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특별한 억양 없이 거의 일정하다.
체향	고급스러운 향이 느껴진다. 아무래도 향수를 사용하는 거겠지.
습관	당황할 때 볼을 붉는 습관이 있다.
취미	❖ 배지 수집하기
안전팀에 배정받았을 때의 소감	[데미안_인터뷰_기록 일부 발췌] 데미안: 음~ 나를 왜 이곳에 넣었는지는 의문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알거든. 난 안전팀에 어울리지 않는 다는 거. 근데 뭐, 어찌됐어? 안전팀이라는데. 그냥 즐기기로 했지.
etc	- 왼손잡이

Stats

[스탯]

용기	지혜	절제	정의
			
등급		V	

Relationship

[선관]

Belongings

[소지품]

배지들

선글라스

간식

배지를 담는 작은... 가방